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ARCS 모델을 활용한 분단소설

교육 연구

- 윤홍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정해경

ARCS 모델을 활용한 분단소설

교육 연구

- 윤흥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 함

2013年 5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정해경

인 준 서

정해경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비정치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통일관을 갖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받침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분단소설 교육은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이유와 배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스스로 체득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문학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동기유발 문제이다.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부여해 준다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동기유발에 제대로 심혈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ARCS 모델을 제안하였다.

ARCS 모델은 동기유발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4가지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동기유발뿐만 아니라 유지를 목표로 한다. ARCS 모델은 학습자가 분단소설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윤홍길의 소설 「장마」는 두 할머니의 갈등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민족 동질감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점에서 분단극복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까지 「장마」는 고등학교 국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분단소설의 좋은 텍스트였다. 하지만 2007

개정 이후의 문학교과서에서는 여러 검정교과서가 출간되었음에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장마」를 텍스트로 선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천재문화에서 발행한 2007개정 문학교과서 『고등학교 문학Ⅱ』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장마」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ARCS 동기설계 단계를 적용하여 ARCS 모델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분단소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질화된 문화체계의 동질화를 모색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각자가 스스로 체득하도록 함이다. 즉, ARCS 모델을 분단소설의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수업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며, 학습자의 요구나 흥미를 학습 내용과 관련시키고,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뒤 그 결과에 만족감을 느껴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분단 상황이 지속될수록 민족의 언어, 생활, 사상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분단 이후의 세대들은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의 아픔이나 통일이 직접적일 수 없는 전후세대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는 문학의 특성을 살린다면 통일 교육에서 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2. 분단현실과 문학교육	11
2.1 문학교육과 분단현실	11
2.2 분단소설의 전개와 양상	14
2.3 문학교육과 분단소설	17
3. ARCS 모델과 분단소설 교육	22
3.1. ARCS 모델의 의미와 특성	22
3.2. ARCS 모델의 동기설계 단계	34
3.3. ARCS 모델로 본 「장마」의 의미	39
3.4. ARCS 모델을 활용한 「장마」 수업지도안	63
4. ARCS 모델 활용과 분단소설 교육 특성과 의미	77
5. 결론	82

참 고 문 헌

ABSTRACT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1.1.1 문제제기

오랜 역사를 함께 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후,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은 팽팽한 긴장 속에 있다. 분단만 된 것이 아니라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증오심과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 아직도 이념과 군사·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남아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청산하고 통일 한국을 이룩하여 한 민족이 평화 속에 안정을 찾아야 한다. 냉전체제가 소멸된 국제적 환경과 더불어 세계의 문화 진보와 인류의 행복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는 외부적인 장애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통일관이 국민들 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환경이 구조화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안겨진 과업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통합만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비정치적인 인식이 통일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길밖에 다른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통일관을 갖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받침목이 될 것이다. 우리의 분단소설 교육은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이유와 배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스스로 체득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분단문학을 배우는 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내면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문학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상상하고, 잠재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잠재울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분단소설을 배우는 것은 분단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문학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동기유발 문제이다.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부여해 준다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동기유발에 제대로 심혈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기 유발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실태 분석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수업 연구 시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어과 수업에서도 작품의 특성과 각 차시의 목표에 상관없이 일관된 동기유발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수업 시작 단계에서는 전 차시 학습을 상기시키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수업 중간에서는 일시적으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국어과 수업에서 지침이 될 만한 동기유발 설계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교수학습 이론가들에 의해 동기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이 있어왔다. 특히 켈러는 그 동안의 동기이론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

여 수업에서 동기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제시해주는 ARCS 모델을 개발하였다. ARCS 모델은 동기유발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4가지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동기유발뿐만 아니라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취지에 적합한 수업모델이다. 또한 ARCS 모델의 효과성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연구들이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과에서는 아직 드물며 특히 소설 쪽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ARCS 모델은 학습자가 분단소설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설 「장마」는 분단 극복 의지가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학습자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 유리하다. 본고에서는 ARCS 모델이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한 분단소설 「장마」의 수업방안을 연구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1.2 연구사 검토

본고에서는 「장마」의 교육 방안의 선행연구와 ARCS 모델이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분단소설 「장마」에 대해서는 작품의 내적가치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에 관해서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윤홍길의 분단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문학사적 차원에서 학위논문을 통해 그의 분단소설의 특징을 구명한다. 그 중 「장마」는 분단소설의 한 모범으로서 분단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소설사적 평가를 받았

다.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극을 가족의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으며 화해 가능성을 모성과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샤머니즘은 우리의 전통을 상징하는 만큼 남북의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정서적 화합을 통해 치유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민족의 동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장마」의 교육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의 추세는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 장면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구성주의 교육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구성주의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으로, 교육학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사실이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수용자의 감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은 다양한 반응을 권장하고 열린 가치를 모색하게 하여 문학 작품 해석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개별 학습자 특성 모형과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에 입각한 설계 모형, 열린 교육 관련 모형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마」의 교육 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놀이 수업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¹⁾ 역할 놀이 수업이란

1) 이주연, 「역할놀이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실제 : 윤홍길의 『장마』와 이청준의 『눈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오인희, 「역할놀이를 통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소설교육방안 연구 : 윤홍길의 「장마」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윤경, 「역할놀이를 활용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 :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과 윤홍길의 「장

역할 유희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사람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그 역할이 갖는 의미와 느끼는 감정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는 수업 모형이다. 이 모형은 아동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정의, 동정심 등의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목적으로 구안되었다.

둘째, 맥락을 고려한 연구이다.²⁾ 맥락은 일상의 언어생활 및 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흐름이 대두되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맥락’ 범주가 도입된 이래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맥락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국어교육에서 언어활동을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교육매체를 적용한 연구이다.³⁾ 주로 칠판이나 각종 인쇄물을 활용했던 초기 매체와 달리 현대에는 대부분 디지털화 된 통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매체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교육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⁴⁾

반면 ARCS 모델을 국어교육에서 활용한 연구는 미미했다.

마」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2) 남정희, 「상황맥락을 고려한 말하기 쓰기 교육 방안 연구 : 윤흥길 「장마」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3) 이미혜, 「다매체를 활용한 전쟁체험서사 교육 방안 연구 : 윤흥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이수정,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방안 연구 : 윤흥길 「장마」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4) 정수연, 「학습자 활동 중심의 소설 지도 방안 연구 : 윤흥길 「장마」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민선, 「협동학습을 통한 분단소설 교육방안 연구 : 윤흥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박혜라, 「분단소설의 학습자 중심 교육방안 연구 : 윤흥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옥경옥⁵⁾은 국어과 ICT 활용 교수·학습 모형, 웹 기반 교수·학습 설계, ARCS 동기 전략 등 문학사 단원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이론과 수업 모형들을 검토하였다. ‘매력적인 수업’이라는 차원에서 ARCS 동기 전략과 교실 수업 전략을 적절히 투입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제시하였다. 하지만 ARCS 동기 전략을 문학사 교육들 중 하나의 수업 모형으로 검토하였을 뿐, 문학사의 교육 방향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정미정⁶⁾은 국어과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교사가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에 교수의 멘트 중 동기 유발을 촉진하는 멘트로 ARCS 모델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ARCS 모델의 기초원리만 언급하고 있지 실제 온라인 토론학습을 켈러의 10단계 동기 설계 코스에 맞게 구성하지는 않았다.

전희경⁷⁾은 제7차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ARCS 모델의 4가지 동기 요소를 준거로 잡아 분석하였다. ARCS 모델을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학습 환경의 동기적 측면을 설계하는 문제해결 접근법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주요부분으로 언급하였다. 첫째는 동기의 구성요건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인간 동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합한 결과물이다. 둘째는 특정 대상에 적절한 동기 향상 방법을 구안하는 체계적 설계 과정이다. 이러한 설계 과정에 따라 ARCS 모델을 단순한 기술적이거나 처방적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적용 중심적 이론으로 특징지었다. 하지만 정작 본문에

5) 옥경옥, 「문학사 교육 방법 연구 : ARCS 동기 전략과 국어과 ICT 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WBI 교수·학습 설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6) 정미정, 「국어과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교사의 학습 촉진 멘트의 유형이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7) 전희경, 「교과서 편찬 기본 방향에 따른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는 ARCS 모델을 적용한 수업모형은 보이지 않았다.

임택균⁸⁾은 전자교과서에 ARCS 모델 이론을 응용하였으나 동기설계 단계를 수업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전자교과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지원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학습동기 및 몰입의 유발을 들 수 있다. 이에 임택균은 전자교과서를 개발할 때 학습동기와 몰입 기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려할 사항에 대해 ARCS 모델 이론을 적용하였다.

김옥림⁹⁾은 시 창작 동기화 지도 방책으로 ARCS 모델 이론의 동기요소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시 창작의 동기요소를 파악하여 ARCS 모델 이론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흥미와 호기심 유발, 개인적 경험과 상상, 허용적 자기 표현, 즐거움 향유라는 4가지 구성요소로 시 창작의 동기화 방책을 분석하였다. ARCS 모델 이론이 매력적인 수업을 위한 동기설계 방안인 점을 본다면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한석¹⁰⁾은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중심학습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과 말하기·듣기·쓰기의 ‘넷째마당. 문제와 해결’ 단원을 선택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중심학습을 구현하고 9차시 수업을 실시하는 부분에서 ARCS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학습동기 검사지와 학업성취도 검사지를 통해 사후결과를 검토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8) 임택균, 「국어과 전자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9) 김옥림, 「시 창작 동기화 지도 방책 연구 : ARCS(동기요소)를 활용하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0) 김한석,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중심학습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은경¹¹⁾은 ARCS 모델이 국어과에서 활발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어 과목을 굳이 학습 동기 유발이 필요한 과목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장 흥미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나는 '국어 지식' 영역에서 ARCS 모델을 적용하여 주의력, 관련성, 만족감의 항목에서 동기 유발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ARCS 모델을 실제 국어과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국어과의 한 영역의 한 단원을 선정하여 실행한 연구로 국어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어과의 동기 유발 전략을 연구를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장마」의 작품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과 국어교육에서의 ARCS 모델 활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장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ARCS 모델 역시 '학습자 중심'의 동기유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에서 특히 '문학' 영역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ARCS 모델 활용이 분단소설 교육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분단소설로서 「장마」의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분단소설을 배우는 데에 동기부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분단현실을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단의 극복 의지가 담

11) 김은경, 「ARCS 동기화 모형이 국어과 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긴 윤희길의 소설 「장마」를 선정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장마」는 민족적 공통분모인 반근대적 공동체 감각의 회복에서 분단극복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두 할머니의 갈등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민족동질감의 회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까지 「장마」는 고등학교 국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분단소설의 좋은 텍스트였다. 하지만 2007개정 이후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여러 검정 교과서가 출간되었음에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장마」를 텍스트로 선정하고 있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장마」가 분단소설로서 충분히 가치를 지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검정 교과서 수록현황이 저조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로 교육방법을 문제 삼고 대안책으로 ARCS 모델을 적용해보고자 「장마」를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본론에서는 그동안 분단문학이 문학교육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전개되어 왔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여 분단소설이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갖도록 지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분단소설과 문학교육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일 문학론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마」를 통일 교육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업 방안으로 제시할 ARCS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장마」교육에 있어 ARCS 모델의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마」의 분단소설로서의 성격을 분석한다. 켈러의 동기설계 10단계 중, 대상자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따라 동기설계 코스를 5단계로 통합하여 설계한다. 코스 정보 획득 단계에서 「장마」가 수록되어 있는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파악한다. 기존 교재 분석 단계에서 (주)천재문화에서 발행한 2007개정 문학교과서 『고

『중학교 문학Ⅱ』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장마」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동기전략 선택 단계에서는 실제로 수업 및 교재에 포함될 동기전략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교재 선택 및 개발단계에서는 기존 교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하여 재구성할 부분에 대하여 제시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를 질문형식으로 기술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기 위한 평가 질문 사항을 제시하고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ARCS 모델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ARCS 모델의 분단소설 교육 적용이 갖는 의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장하고자하는 분단소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질화된 문화체계의 동질화를 모색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각자가 스스로 체득하도록 함이다. 즉 ARCS 모델을 분단소설의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수업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며, 학습자의 요구나 흥미를 학습 내용과 관련시키고,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뒤 그 결과에 만족감을 느껴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2. 분단 현실과 문학교육

2.1. 분단문학의 개념

분단을 소재로 한 수많은 소설들이 씌어져왔지만 그 원인을 깊이 추적해 들어간 작품은 의외로 드물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개재해 있겠지만, 우리 작가들이 6·25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외부의 폭력에 압도당하였다는 점, 점차 강화되어온 냉전 논리에 의해 안팎으로 창작의 자유가 제한받았다는 점 등을 우선 들 수가 있겠다. 게다가 눈멀지 않고 객관 현실을 냉정하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성작가들의 대부분이 죽거나 38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문단의 주류를 형성한 젊은 작가들(직접체험세대)은 동족상잔의 비극에 눈멀어 흑백의 선명한 냉전 논리에 침윤되었으며,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세대(유년기 체험세대)는 전쟁 와중에서 입은 외상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¹²⁾

분단문학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인 내포를 갖고 문학사에 정착된 것은 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전쟁문학, 전후문학, 이산문학, 분단시대의 문학 등 다양한 용어로 6·25 이후의 문학을 지칭해 왔으나 이제는 70~80년대의 문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분단문학이라는 말이 내실을 갖춘 용어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¹³⁾

우선 전쟁, 전후문학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분단문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용어이다. 세계 문학에서 20세기 전후문학이라고 하면 흔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전후

12)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470.

13) 강진호, 「분단현실의 자기화와 주체적 극복 의지」,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p.42.

의식과 새로운 문학 방법론에 입각한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분단문학은 시기적으로나 경향상으로나 일치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그 구분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시대적으로 서구의 전후문학은 1940년대 중반부터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한국 문학에서는 6·25전쟁 이후인 1950년대를 특징으로 한다. 또 경향상으로 볼 때 전후문학이 갖는 휴머니즘과 인간 조건의 추구 등 보편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전후문학이 인간성을 억압하는 비정적인 기계 문명에 대한 공격과 보수적인 문화 풍토 및 허영과 위선에 찬 사회제도에 대한 반역의 속성을 지닌 것이었다면 한국의 분단문학은 한국의 분단문학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분단과 폐허만 남은 피폐한 현실과 폐허의 마음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외에도 분단문학은 문학적 전통과 유산이 빈약하고 일제 점령과 그 이후 민족어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취약한 문학적 토대에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문단의 손실이 워낙 컸으며, 전후 세계문학 사조와 기법의 비판적 수용이 미처 이루어지기 전에 전란에 휘말렸다. 전투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끝났다고 할 수 없는 휴전의 상태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체제 속에서 생존해야 했다.¹⁴⁾

이산 문학이라는 개념 역시 분단문학의 의미를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산 문학이란 이산가족의 비극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분단이나 전쟁에 대한 가족의 비극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의 문제는 분단의 문제를 떠나 생각할 수 있고, 모든 분단문학이 이산을 전제로 하로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분단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25 문학이라는 용어가 분단문학과 대등하게 쓰이고 있는 현상은 분단이

14)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전후 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pp.221-222.

라는 본질과 6·25 라는 사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용어이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6·25 가 분단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6·25 문학이라는 용어는 분단문학의 소재로 분단문학의 하위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¹⁵⁾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단문학이 개념과 범주를 규정하자면, 분단문학은 분단에 대한 문제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분단의 원인을 깊이 연구한 것이며 분단 극복의 의지가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문학을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면화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과 혜택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이 분단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 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북한은 오랫동안 같은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해 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이해시킨다. 또 우리 민족이 분단을 맞게 되었던 배경과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

15) 임현영, 「분단시대 문학론고」, 『민족의 상황과 문학』, 한길사, 1986, p.202.

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내지는 통일의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분단문학은 학습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당위성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2.2. 분단문학의 의미와 양상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체험이 담긴 작품의 쓰인 시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분단문학은 대응방식에 따라 분단 상황에 안주하면서 분단의 논리를 추종해 온 문학과 분단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분단 논리의 모순을 끊임없이 문체 삼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¹⁶⁾ 이를 구체화하여 살펴본다면 6·25 직접 체험세대의 소설은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현상과 본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상적 삶에 무게중심이 옮겨진 작품이다. 염상섭의 「취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현상과 본질이 서로 대립하는 유형의 작품으로 박영준의 「용초도근해」, 오상원의 「유예」가 있다. 현상과 본질이 서로 맞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극적 세계로 현실과 본질이 비극적 위기의 순간에 단 한 번 일치하게 된다. 셋째, 현상과 본질이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그 통합 지향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유형으로 손창섭, 장용학의 문학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현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나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에 의해 규율되는 유형으로 김동리의 「홍남철수」, 선

16)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p.468.

우희의 「싸릿골의 신화」 등 반공전쟁소설이 있다.

다음으로 분단소설의 전개과정을 시대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50년대는 전쟁의 충격과 상처를 피해 의식, 휴머니즘, 허무주의, 실존주의적인 정서로 어루만지던 시대였다. 60년대에는 전쟁 체험에 대한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쟁 체험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다. 70년대에 이르면 유소년 시절에 전쟁을 체험한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비극과 상처를 회상과 기억을 통해서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60년대의 우리 소설은 본격적인 내면 탐구의 길로 들어서면서 분단소설이 소재적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소년의 순수함으로 본 전쟁과 전쟁 이전의 혼란상을 그림으로써 혼란의 당대 현실을 떠올리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실상에 눈뜨는 소년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작품들, 아버지 탐구를 통해 아버지가 표상하는 지난 역사를 전면적으로 본원하려는 소설들, 샤머니즘적 모성으로 아버지들의 욕망과 폭력으로 상처입고 찢어진 과거와 현재를 감싸 안으려는 작품들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성동의 「오막살이 집 한 채」, 전상국의 「허허벌판」, 이문열의 「영웅시대」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드러나는데 이때의 아버지는 삶을 조직하고 그것에 방향을 부여하며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도록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를 표상한다. 김원일의 「노을」에는 귀향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확인과 비판 그리고 자기반성을 담아내고 있다. 조정래의 「유형의 땅」과 「불놀이」는 위 작품들과 동일한 인식 위에 서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토대를 문제 삼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는 해방 직후의 대립과 갈등의 혼란상,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연결되는 한국 사회의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이 그려져 있다. 윤홍길의 「장마」는 이데올로기라는 근대적인

가치 형태로 인한 갈등이 반근대적인 샤머니즘으로 해소되는 작품이다.

전쟁으로 가족이나 고향 또는 애인과 같은 소중한 존재와의 이별을 담은 이산소설이 있다. 이산소설에는 이호철의 「큰 산」, 김동리의 「홍남철수」, 이호철의 「관문점」, 박완서의 「겨울나들이」, 하근찬의 「임진강 오리 떼」, 유재용의 「그림자」, 선우휘의 「진혼」,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깊은 한탄이 담겨있어 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고통이 환상을 동반하여 나타난 작품으로는 조정래의 「그림자 접목」, 윤홍길의 「무제」,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송기원의 「다시 월문리에서」 등이 있다.¹⁷⁾

80년대 이후 90년대에는 전쟁 미체험 세대의 시각이 드러나거나 분단과 이산 이후의 후대 가족사를 서술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전의 시기들이 역사의 바로잡음이라는 과거 지향적 성향이 초점에 맞추어졌다면, 이 시기는 교류의 새 시대를 여는 미래 지향적 의지를 담고 있다. 진정으로 올바른 분단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문화적 소명 업무를 다양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분단 논리에 순응하면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도피를 내세웠던 문학의 흐름과, 분단 논리를 강하게 거부하며 이데올로기에 도전해왔던 흐름 속에서 현재의 우리는 앞으로 분단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된다. 진정한 분단문학은 현실을 정직하게 다룬 작품과 이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좀 더 많이 나옴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17)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p.269-497.

2.3. 문학교육과 분단소설

해방 이후 현재까지 계속된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이전까지의 통일교육은 지배권력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반통일적 반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왔다. 하지만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분단 때 가졌던 폐쇄적 관념이나 편견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 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차 교육과정부터 평화 지향적인 통일 교육이 시작되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의 '문학'의 '영역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통일 시대 문학에 관한 내용 제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통일 시대와 문학적 지향성을 강조한 것이다.¹⁸⁾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국어 능력 신장'과 '전인 양성'을 목표로 문학교육에 있어서도 통일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에 수록된 분단 관련 문학 작품은 6차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학습 내용도 문학의 현실 반영 측면은 도외시한 채 표현과 형식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아왔다.¹⁹⁾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해설서에서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의 '문학' 과목의 성격을 문학의 수용 활동과 생산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언어예술로서

18) 교육인적자원부,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2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7, p.499.

19) 박윤주, 「분단소설 교육 방법 연구 - 윤홍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

의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하고 모국어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간다움을 성취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²⁰⁾

특히 목표 ‘다’ 항목은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다.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학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을 매개로 학습자가 인간과 세계의 여러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목표 ‘가’ 항목의 문학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는 문학 학습의 또 다른 궁극적 지향점으로 문학이 갖고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

20) 교육과학기술부,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② 국어」, 2007, p.393.

를 제시한 것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문학 향유가 개개인의 습관이 되면 이는 곧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문학 향유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다’ 항목의 내용은 문학에 대한 태도를 명시한 것이기도 하다. 문학 향유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문학을 포함한 문화의 발전은 물론 공동체 자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의 세부내용에서는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③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대내적 다양성과 대외적 전개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학에 대한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세계화 시대와 다가올 통일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국가 단위의 한국 문학 이해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문학의 총체로서 한국 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분단 이후의 북한 문학과 근대 전환기 이래 해외로 이주한 재외 국민과 동포가 한국어로 생산해 온

문학을 한민족 문학의 범주로 포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략)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난과 그 극복은 현대 한국 문학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민족 문학으로서 북한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략)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문학의 개념과 가치 이해하기, 지역 문학의 대표적 작품 이해하기, 북한문학 이해하기, 통일 민족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지향 이해하기, 한민족 문학의 개념과 가치 이해하기, 해외 한민족 문학의 대표적 작품 이해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내용을 학습할 때에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자가 시각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분단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민족사의 비극적인 특수성을 집약한 현실이다. 분단은 광복 이후 강대국에 의한 국토분할과 함께 상이한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치체제가 양립하면서 동족간의 내분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하여 엄청난 비극을 양산했다는 역사적 사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세월이 흘러 생생한 체험의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비극이 재생산되는 현재진행형의 현실이라는 데 그 중요성이 존재한다.²²⁾

화해를 통한 소설의 대응상은 민족 내부에 조성된 동질성의 훼손상태를 치유하려는 유형으로서 분단인식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모색의 하나로 보인다. 화해의 문제는 정치적 통합에 비견될 만큼의 대안적 무게를 갖는다. 그것은 ‘분단 극복’이라는 당위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심미적 과정이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소설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분단 현실에 대한 투명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분단 의식의 극복을 위한 교육 내용과 수업 설계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억압적인 사회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참다운

21) 위의 책, p.409.

22)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p.13.

23) 위의 책, p.245.

현실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소설이 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은 왜곡된 현실 인식을 교정시켜, 자아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키우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해와 관용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²⁴⁾

분단소설의 교육 방향은 분단소설 교육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윤홍길은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면서도 분단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장마」는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 상황과 극복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긴 가정 내의 비극적 상황을 그려내고 그 아픔을 토속적인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학습자들에게 분단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으며 통일을 향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어린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참담했던 시대 상황을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텍스트를 바라보게 해준다.

24) 이민선, 「협동학습을 통한 분단소설 교육방안 연구-윤홍길 「장마」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3. ARCS 모델과 분단소설 교육

3.1. ARCS 모델의 의미와 특성

켈러는 인간 동기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통합하였다. 이는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으로 ARCS라고 약칭한다. ARCS 모델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문제해결방법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동기의 구성요건을 분류하여 크게 네 가지를 범주로 통합하고 그에 맞는 하위전략들을 구성한 것이며 둘째는 학생의 동기 조건을 적절한 동기전략을 처방하기 위한 토대로서 분석하는 절차 속에 다양한 동기 요인들을 통합시켜 동기 향상방법을 구안한 동기설계 단계이다. 켈러의 저서 『매력적인 수업 설계』(1999)에서 ARCS 모델의 세부적인 전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3장 ‘학습자 동기의 요소는 무엇인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

3.1.1. 주의집중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가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학습자의 마음이 수업 이외의 다른 곳에 있다면, 아무리 좋은 수업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학습효과가 없을 것이다. 주의집중의 하위 구성요건으로는 지각적 각성, 탐구적 각성, 변화성이 있다.

지각적 각성은 예기치 못했던 소리나 움직임으로 자동적으로 사람의 주의집중을 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술들은 어찌다가 한 번 사용해야 효과적

25) J. M. 켈러·송상호, 『매력적인 수업 설계』, 교육과학사, 1999, pp.51-87.

이고, 효과도 아주 잠시 동안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깊은 호기심의 수준이나 순간이 지속되도록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탐구적 각성은 호기심 각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유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적 호기심은 학습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교사가 깨우쳐 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교사가 지적 호기심을 각성하기 위해 하나의 내용을 소개한 후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조사하고, 대답이나 의견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기법은 학습자들의 높은 수준의 탐구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발달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변화성은 학습자들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거나 교사의 변함없는 억양 등의 교실에서의 수면유발 조건들이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고 학습자들을 졸리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학습자들의 감각 추구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말한다.

구성요건	구체적인 전술 내용
A1. 지적 각성 흥미를 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인류”, “사람”, 또는 다른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기. 2. 구체적인 실례나 생생한 교재를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 아이디어, 또는 다른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3. 복잡한 개념이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기. 4. 문단 형식보다는 일련의 목록 형식으로 항목들을 제시하기. 5. 단계별 과정이나 개념들 간의 관계를 흐름도, 다이어그램, 만화, 또는 다른 시각적 보충교재를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p>로 만들기</p> <p>6. 교수자는 학습자와 끊임없이 시선을 교류하고, 열성적인 태도를 나타내기.</p>
<p>A2. 탐구적 각성 탐구하는 태도를 어떻게 유발할까?</p>	<p>1. 과제를 ‘문제거리’로 제시하거나 소개하기.(즉,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탐구심을 유발하기)</p> <p>2. 지적 갈등을 유발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기.(예를 들면, 모순되는 과거 경험, 역설적 실례. 대립하는 원리나 사실, 예기치 못했던 의견 등을 제시하기)</p> <p>3.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들을 사용하여 신비감을 불러 일으키기.</p> <p>4.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신비감을 만들기 위해 시각적인 것을 사용하기.</p>
<p>A3. 변화성 그들의 주의 집중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p>	<p>형식에서의 변화성</p> <p>1. 정보(글이나 그림)를 분리하기 위해 종이나 멀티미디어 스크린의 흰 여백 사용하기.</p> <p>2. 제목, 인용문, 규칙, 주제어 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하되, 일관성을 유지하기.</p> <p>3. 레이아웃에 변화를 주기.(즉, 정보배치 공간에 변화주기)</p> <p>4. 제시내용의 유형(예를 들면, 글, 그림, 표, 사진 등)에 변화를 주기.</p> <p>양식과 배열에서의 변화성</p> <p>5. 진술형식(예를 들면, 설명, 기술, 화술, 설득)에 변화를 주</p>

	<p>기.</p> <p>6. 진술속성(예를 들면, 진지하게, 재미있게, 교훈적으로)에 변화를 주기.</p> <p>7. 수업계열에 변화를 주기.(예를 들면, ‘소개’, ‘자료제시’, ‘실례’, ‘연습’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고 필요시 추가도 하기)</p> <p>8. 내용제시와 능동적인 반응이 필요한 수업활동(예를 들면, 질문, 문제, 연습, 퍼즐) 사이에 변화를 주기.</p>
--	---

3.1.2. 관련성

사람들은 예측했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때 하던 일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된다. 동기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학교 상황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성취, 협동심과 인내 등에 대해 동기유발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자로서 교사의 사명감은 학습자의 목적을 형성시켜주고, 수업을 그것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관련성은 “우리는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다. 인정, 승급, 물질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보상은 학교에서 수행과 관련되어 거의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동기유형은 학습동기 보다는 성취동기에 가깝다.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학습자의 환경, 흥미, 목적에 연결시켜 관련성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와 관련된 관련성의 세 가지 주요 범주와 진술에는 목적 지향성, 모티브 일치, 친밀성이 있다.

목적 지향성은 학습자들이 수업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목적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과 사후” 비교법은 수업내용을 마스터하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유용한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미래바퀴”법은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종이의 한 가운데 하나의 원을 그리고, 이 교재를 성공적으로 학습했을 때 이것이 미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생각하여, 그린 원으로부터 하나의 선을 그어 또 다른 원을 그린 다음 그 안에 하나씩 항목을 놓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원을 완성하면 새로운 원에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이 방법이 끝나면 학습자들은 현재 주제가 얼마나 많은 잠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티브 일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상황 속에서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심리를 활용한 전술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을 준다면 그들은 수업에 훨씬 더 흥미와 관련성을 느낄 것이다. 또한 교사의 열성적인 모습과 도전 및 성취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은 학습자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화된 관심과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관련성의 감각을 증가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친밀성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각자의 흥미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활용한 전술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과거 지식과 경험에 새롭고 낯선 내용을 연결시켜 새로운 지식과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구성요건	구체적인 전술 내용
R1. 목적 지	현재 가치
형성	1. 자명하지 않다면, 수업의 직접적인 이점을 말하기.
학습자의 요	2. 수업 내용의 내재적인 만족감을 강조하는 말, 일화, 실

<p>구를 어떻게 최적으로 충 족시켜 줄 수 있을까?</p>	<p>례들을 포함하기.</p> <p>미래가치</p> <p>3. 이 교재들을 학습한 후에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기.</p> <p>4. 학습자들이 미래에 필요할 지식 및 기능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실례와 연습활동을 넣기.</p> <p>5. 학습자들에게 이번 수업의 성공이 미래 목적 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예를 들어, 이번 수업에서 성공은 후속적인 수업의 등록, 주요 후속 학습 영역의 선택, 고급과정에 등록, 봉급인상, 직장 유지, 또는 승진에 있어서 중요하다.)</p> <p>6.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대처기능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에 대해 말하기.</p> <p>7. 학습자들이 이 수업을 앞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에 내재적으로 흥미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도록 격려하기.</p>
<p>R2. 모티브 일치 수업을 학습 자의 학습양 식과 개인적 흥미에 언제, 어떻게 연결 시킬까?</p>	<p>기본적 모티브 자극</p> <p>1. 학습자들이 한 개인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기.</p> <p>2. 성취 노력과 목적달성을 나타내는 실례(일화, 통계 등)를 제공하기.</p> <p>3. 성취와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나 실례를 포함하기.</p> <p>4. 학습자들이 성취 및 성공의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p>

	<p>감정들을 시각화하도록 격려하기.</p> <p>5. 개인적인 목적설정, 기록유지,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습을 포함하기.</p> <p>6. 협동학습을 요구하는 연습을 포함하기.</p> <p>7. 문제해결이나 성취행동을 유발하는 퍼즐, 게임, 또는 모의상황을 포함하기.</p> <p>8. 연습(퍼즐, 게임, 모의상황을 포함하여)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서로서로, 또는 자기자신에 대하여(예를 들어,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하여) 설정된 준거에 대하여 경쟁하도록 격려하기.</p> <p>역할모형</p> <p>9. 학습내용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장애, 성취,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람에 대한 일화를 사용하기.</p> <p>10. 수업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한 단계 높은 목적을 획득한 사람들로부터 실례, 증언 등을 사용하기.</p> <p>11. 독특한 기능/지식 영역의 이점을 신뢰롭게 기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나 인용을 포함하기.</p>
<p>R3. 친밀성</p> <p>수업과 학습자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킬까?</p>	<p>이전 경험에 대한 연결</p> <p>1. 수업이 학습자들의 현재 기능이나 지식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에 대해 명백하게 진술하기.</p> <p>2. 이미 학습자들에게 친밀한 과정, 개념, 기능 등과 현재 교재를 연결시키기 위해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기.</p>

	<p>개별화를 위한 선택</p> <p>3. 학습자들에게 과제 내용에 대해 선택권을 주기.(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최소한 몇 가지 과제에 있어서라도 개별적인 흥미를 느끼는 실례나 주제들을 선택하도록 하기)</p> <p>4. 학습자들에게 과제의 유형에 대해 선택권을 주기.(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하나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p>
--	--

3.1.3. 자신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공포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교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자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더 높은 자신감을 개발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훨씬 평온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 교사는 교실수업에서 성공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에 열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람들은 직장과 삶에서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 자기 효능감은 결과에 대한 어떤 통제를 느끼기 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유능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능력이 유용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의 실제 상황은 때때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어떤 학습

자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도 금방 포기해 버린다. 이것은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신중하게 통제된 성공경험을 가지고 재귀인 훈련을 실시하면 다소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성공적이고 기대이상의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자의 자신감을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지금까지 제시한 동기의 다른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하위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학습요건은 학습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성공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을 발달시키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무엇이 기대되는가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학습자로 하여금 성공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성공기회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통제능 학습자들에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구성요건	구체적인 전술 내용
C1. 학습요건 성공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어떻게 키워 줄 수 있을까?	1. 성공적인 학습의 증거로서 학습자들에게 기대되는 관찰가능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진술문을 제공하기. 2. 가능할 때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목적이 나 목표들을 적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C2. 성공기회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도전수준 1. 명확하고, 따라하기 쉬운 계열로 내용을 조직하기.

<p>있는 학습결형을 어떻게 제공할까?</p>	<p>2. 교재의 각 부분마다 단순한 과제에서부터 어려운 과제로 계열화하기.</p> <p>3. 대상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절한 도전수준을 만들어주기.(독해수준, 사례, 연습)</p> <p>불안감소</p> <p>4. 교재에 “속임수”나 지나치게 어려운 질문, 또는 연습문제가 없도록 하기.</p> <p>5. 연습문제를 목표, 내용, 실례에 일치하게 만들기</p> <p>6. 연습문제에 대한 해답과 같이, 자기 평가를 위한 방법을 포함하기.</p> <p>7. 만족스러운 반응을 확인해주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준거에 일치하지 않는 반응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p>
<p>C3. 개인적 통제</p> <p>학습자가 자신의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p>	<p>1. 계열성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p> <p>2. 학습자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p> <p>3.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택권을 부여하기.</p> <p>4.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연습방법을 고안하도록 기회를</p>

	<p>제공하기.</p> <p>5. 학습환경(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서 공부하거나, 혼자서 공부하기)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p> <p>6.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교재가 개정될 수 있는가, 또는 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p>
--	---

3.1.4. 만족감

내재적 만족감은 통달의 감정이나 유의미하고 도전적인 과제 성공의 기쁨에서 온다. 관련성과 자신감을 위한 학습활동과 수업을 설계할 때, 대상자에게 최적의 도전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그들이 가치로운 과제라고 지각하게 하는 것이 기초이다. 내재적 만족감은 숙달을 하고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이도의 수준을 조금씩 올려 주어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재적 동기를 지원하는 조건과 수준을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외재적 보상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 교사는 내재적 만족감과 함께 외재적 강화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보상에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학습자들이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해 만족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욕구를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만족감의 세 가지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요건	구체적인 전술 내용
<p>S1. 내재적 강화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내재적 즐거움을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할까?</p>	<p>구체적인 전술 내용</p> <p>긍정적인 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능하면 새롭게 획득한 기능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2.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때 학습자의 내재적 자존심에 대한 언어적 강화를 제공하기. 3. 목적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말을 교재나 피드백에 제공하기. 4. 과제를 숙달한 학습자가 과제를 숙달하지 못한 다른 학습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5. 성공에 필수적인 어떤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승인을 제공하기. 6. 직면하게 되는 어떤 위험이나 도전에 대해 승인을 제공하기. <p>계속적인 동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관련되어 있는 흥미있는 다른 영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8. 주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정보를 알려주기. 9. 새로운 적용 영역에 대해 학습자에게 알려주기.
<p>S2. 외재적 보상 학습자의 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복 연습과 같은 지겨운 과제를 위해 점수제도 같은 외재적 보상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임을 포함하기. 2. 내재적으로 흥미있는 과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기치 못

<p>공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제공할까?</p>	<p>한 방법으로 외재적 보상을 사용하기.</p> <p>3. 정확한 반응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포함하기.</p> <p>4. 학습자가 과제를 달성하는 동안에, 또는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한 후에 개인적인 주의집중을 하기.</p> <p>5. 학습자가 새로운 기능을 숙달하기 위해 노력할 때 종종 강화를 사용하기.</p> <p>6. 학습자가 과제에 능숙해짐에 따라 보다 간헐적으로 강화를 사용하기.</p> <p>7. 과제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위협이나 감시를 피하기.</p> <p>8. 개인적, 또는 집단 내 경쟁에서, 또는 수업이 끝날 때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증명서나 “상징적” 보상을 사용하기.</p>
<p>S3. 공정성 공정한 처리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각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p>	<p>1. 최종 연습문제와 사후검사의 문제 내용과 유형이 교재에 있는 지식, 기능, 연습문제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p> <p>2. 최종 연습문제와 사후검사의 난이도 수준이 이전의 연습문제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p>

3.2. ARCS 모델의 동기설계 단계

동기 유발을 위한 네 개의 큰 전략과 이에 포함되는 하위전략들을 살펴보았다. 네 개의 전략들은 각각의 전략이 하나의 구성요건이면서 동시에 상호

연관되어 조직될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관계이다. 동기설계 과정에서는 수업 설계자가 수업에 사용할 동기전략의 수와 유형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각 단계에서 세부적인 기술을 제시한다. ARCS 모델의 동기설계의 각 단계별 중요한 특징들은 위의 책 4장 ‘동기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기설계의 10단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⁶⁾

1단계, 코스 정보 획득(Obtain course Inform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르칠 대상자와 코스에 대한 배경정보를 수집한다. 코스 기술로서 수업의 목표와 수업내용에 관한 간단한 기술을 제시하고 수업의 시기 등을 기술하며 수업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찾는 코스의 정당화 과정을 거친다. 맥락으로 과거, 미래 수업과의 관련성을 찾고 사용할 전달체제를 결정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사용하기 유리하거나 불리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2단계, 대상자 정보 획득(Obtain audience Information)은 학습자의 초기 동기 상태와 수업내용 및 교수전략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찾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태도, 경험한 교수전략, 학습자들의 동질성 등이 포함된다.

3단계, 대상자 동기분석(Audience Analysis)는 학습자 전체나 특정한 소집단이나 개인의 동기 상태를 예측하는 전략이다.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동기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동기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4단계, 기존 교재 분석(Analyze Existing Materials)은 현재의 교재나 채택하려는 교재에서 동기유발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동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교재를 분석하여 ARCS 모델의 각 영역에 대한

26) 위의 책, pp.92-132.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록한다. 교재 분석은 교사로 하여금 교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교재의 각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기 전략을 파악하게 해준다.

5단계, 동기목표 설정 및 측정방법열거(List Objectives and Assessments)에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동기목표로 진술한다. 동기목표에는 학습자가 동기유발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같이 열거한다.

6단계, 예비전략 열거(List Potential Tactic)에서는 동기목표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가능한 모든 동기전략을 열거하는 단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전략들을 선택할 수 있다.

7단계, 최종전략 선택(Select and Design Tactics)에서는 실제로 수업 및 교재에 포함될 동기전략들을 구체화하여 선택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의 학습양식과 교사의 교수양식에 맞는 동기전략을 사용하되, 적절히 사용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8단계, 교수전략에 통합(Integrate With Instruction)에서는 최종 선택한 동기전략을 수업의 내용과 학습활동에 통합시킨다. 설계 대상이 되는 수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요 요소들 나열해 본다. 선택한 동기전략을 살펴보면서 수업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동기전략과 교수전략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한다.

9단계, 교재 선택 및 개발(Select and Development Materials)이다. 앞 단계에서 동기전략을 최종선택하고 사용위치를 결정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동기목표에 맞는 기존의 교재를 선택하거나 수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 교재를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 계획과 개발 결과로서 기대되는 구체적 동기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10단계, 평가 및 수정(Evaluation and Revision)은 동기설계의 마지막 단계이다.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하였는지, 학습효과는 높은지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는 단계이다. 수업설계자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질문형으로 기술하고 평가를 위한 도구와 방법을 열거한다. 학습자의 반응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고 종합적 이해를 기록한다.

이상의 동기설계 과정은 기존의 수업설계자나 교사의 직관 또는 카리스마적 능력에 의존한 것에서 벗어나 동기설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수업설계 모델들은 크게 일반적 모델(generic model)과 상황구체적 모델(situation specific model)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 모델들은 수업설계의 기본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보다 일반적 상황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상황구체적 모델은 특정 대상 조직을 위하여 개발되는 것으로 설계 단계들의 숫자, 순서 등이 바뀌거나 필요시는 생략될 수도 있다.

동기설계모델로서 ARCS 모델은 어떤 학습 환경이나 나아가 업무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RCS 모델은 특정 수업에 맞는 상황 구체적인 모델로 수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이 모델이 주어진 상황의 대상자 분석에 근거하며, 또 처방되는 전략들이 바로 그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ARCS 모델을 활용한 「장마」 수업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일반적 상황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통합한 동기설계 단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ARCS 동기설계모델은 총 4개의 일반적 단계 아래 10단계의 세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계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으며 동기설계 과정 속에서 매우 유기적이

27) 위의 책, p33.

다. 매 단계를 일일이 수행하기보다 몇몇 단계들은 적절히 통합하여 동기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²⁸⁾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10단계의 세부 과정을 5단계로 통합하여 제시한다. 아래 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한 동기설계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 단계	동기설계 단계		통합한 동기설계 단계
분석	1. 코스 정보 획득	➔	1. 코스 정보 획득
	2. 대상자 정보 획득		2. 교재 분석
	3. 대상자 동기 분석		
	4. 기존 교재 분석		
설계	5. 동기 목표 설정 및 측정 방법 열거		3. 동기 전략 선택
	6. 예비 전략 열거		
	7. 최종 전략 선택		
	8. 교수 전략에의 통합		
개발	9. 교재 선택 및 개발	4. 교재 선택 및 개발	
시험평가	10. 평가 및 수정	5. 평가	

분석단계에서 코스 정보 획득단계와 교재 분석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대상자는 수업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므로 생략하였다. 설계단계에서 예비 전략을 설정하여 최종 전략을 선정하는 것은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동기 전략을 분석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개발과 시험평가단계는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거의 그대로 적용하였다.

28) 조정민, 「ARCS동기설계모델을 활용한 국악수업 적용 및 효과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p.33-34.

3.3. ARCS 모델로 본 「장마」의 의미

3.3.1. 분단소설로의 「장마」의 특성

「장마」는 1973년 『문학과지성』 봄 호에 발표된 윤홍길의 중편소설로 혈연의 끈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얽힌 집안간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돈 관계인 김씨 집안과 권씨 집안이 전쟁으로 인해 받은 재해가 조장시킨 반목이 토착적인 무속적 사고에 의해 극복되는 과정이 어린이의 시각으로 묘사된다. 전쟁의 상황에서 상반된 이념을 선택함으로써 불행하게 죽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두 집안은 반목한다. 사상이 다른 두 아들의 행방불명과 전사는 소박하고 평범한 두 모성으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도록 한다. 삼촌과 외삼촌으로 표상되는 이념적 갈등과 할머니와 외할머니로 표상되는 혈연의 끈을 놓고 소설 속의 화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응논리에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서술자인 소년은 이념의 대치가 일으키는 무서움과 어른세계와 전쟁이 내포한 비인간성을 깨달아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장마 속에 나타난 구렁이의 출현이다. 무당이 삼촌의 귀환을 예언한 날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구렁이는 전래적인 무속의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의 현신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구렁이의 출현으로 인해 두 사람의 어긋난 관계가 정감적으로 화해를 이룬다. 집단적인 정신적 원형과 재래적 문화가치가 외래적인 이념이 심화시킨 갈등을 메꾸고 극복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근대적인 무속신앙이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해소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민족적 공통분모인 반근대적 공동체 감각의 회복에서 분단극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문제작이다. 재래적인 신화적 사고에

기초한 민족 동질감의 회복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시도함으로써 분단 문제의 소설적 형상화의 한 유형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⁹⁾

소설 「장마」는 7차 교육과정까지는 고등학교 국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분단소설의 좋은 텍스트였다. 7차 교과서에서 주목되는 특징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 「그 여자네 집」이나 「장마」와 『광장』의 수록은 6차 교과과정에 비하자면 분단 극복을 위한 시대적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장마」는 특히 한층 더 적극적으로 분단 현실을 문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두 할머니의 갈등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³⁰⁾

하지만 2012년부터 바뀌는 고등학교 검정 『문학』 교과서 14종에 수록되는 문학작품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여러 검정교과서가 출간되었음에도 천재(고형진)Ⅱ, 천재(김윤식)Ⅱ에서만 「장마」를 수록하고 있었다.³¹⁾ 그 중에서 천재(김윤식)Ⅱ에는 「장마」가 수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³²⁾ 따라서 2007개정 문학 교과서에서 「장마」가 본문의 제재

2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0) 강진호, 「교과서·문학교육·교사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2002, p.37.

31) 이삼남,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고등수필』, 창비, 2010.

32) 천재(김윤식)Ⅱ에서 「장마」는 대단원 'I. 한국 문학의 의혜'의 '2. 한국 문학의 역사적 흐름' 중 소단원 '(4)현대의 문학'의 '확인 학습'에 수록되어 있다.(pp.158-159) 다음은 장마의 본문 수록 부분이다.

수복이 되어 완정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중략)

"저 늙다리 에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소개된 부분은 「장마」의 중반부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이다. 「장마」에서 분단 현실의 극복양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결말이므로 이 부분을 수록한 것은 「장마」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만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확인 학습'의 문제 내용도 「장마」의 갈래나 역사적 배경을 찾아 보는 것에 머무르고 있었다.

로 소개된 것은 천재(고형진)Ⅱ 한 권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장마」의 입지가 줄어든 이유에는 검정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까닭도 있겠지만, 「장마」가 분단소설로의 교육에서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³³⁾ 우리의 분단현실은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다. 통일교육 측면에서 분단소설 「장마」는 학습자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마」의 간략한 내용과 분단소설로의 「장마」의 성격,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장마」의 본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에서 「장마」는 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 부분이 전문으로 제시되고 앞의 부분으로 줄거리로 요약되어 제시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장마」가 분단소설로 인식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소설 속의 현실 인식을 통해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장마가 지닌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마는 작품의 전체적 배경으로 작품의 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장마가 계속되는 어두운 배경은 앞으로 어떠한 지루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장마가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의 분단현실의 불행과 아픔은 계속된다. 하지만 장마는 기진하여 가랑비로 바뀌면서 사건 역시 점점 해결의 국면을 맞게 된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³⁴⁾

33) 본고에서는 「장마」가 분단소설로서 충분히 가치를 지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검정 교과서 수록현황이 저조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로 교육 방법을 문제 삼고, 대안책으로 ARCS 모델을 적용하고자 「장마」를 제재로 선정하였다.

작품의 마지막 서술인 이 문장에는 장마 기간 동안 힘들었던 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장마가 그침과 함께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이 화해하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장마는 이 작품에서 갈등이자 분단이며, 장마가 끝나는 작품의 결말에서 우리는 분단 현실의 극복 의지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서 볼 점은 작가가 갈등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이다. 「장마」가 구축하고 있는 세계에서 이데올로기는 가족이라는 근원적인 관계에 파고들어 그 관계를 변질시키는 침입자에 지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침입한 것으로 받아드려지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샤머니즘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다.³⁵⁾ 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구렁이의 등장이다. 삼촌의 귀향이 예정되고 갈등 해결의 매개체인 구렁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변화한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집은 삼시에 영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중략)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서 정해 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³⁶⁾

삼촌이 들어와야 할 날에 삼촌은 오지 않고 구렁이가 대신 등장한다. 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삼촌이 죽었다는 생각에 순간 졸도한다. 이 때 이를 대신 수습하러 나선 것은 외할머니였다.

34) 윤홍길, 『장마(오늘의작가총서 8)』 민음사, 1980, p.72.

35) 박종석, 「윤홍길의 『장마』론」, 『국어국문학』 제 22권, 2003, p.215.

36) 윤홍길, 위의 책 p.67.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어 장만헌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야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좇을라고 이려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해집었다. 그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회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³⁷⁾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에서 그가 할머니와 같이 구렁이를 삼춘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욱하며 등지고 있던 두 할머니였지만,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고유전통인 무속신앙인 것이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꺾 매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은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으꼬.”

37) 윤홍길, 위의 책, p.69.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마음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³⁸⁾

적대적 갈등 관계에 있던 두 할머니는 그들이 동일한 무속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자연스럽게 화해에 이른다. 마주잡은 두 손은 그쳐버린 장마만큼이나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데올로기보다도 가족의 사랑과 토속적인 공동체의식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로 인해 「장마」는 분단 현실의 극복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분단 소설로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샤머니즘적 소재와 행위를 통한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결말에는 한계가 있다. 윤희(2010)는 샤머니즘과 모성애를 통한 갈등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두 할머니의 모성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자기 자식의 생사만을 중시함으로써 6·25 전쟁 당시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가족주의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두 할머니의 모성에 대해 감응을 받는 만큼 모성으로 대변되는 정서적 차원의 ‘그 무엇’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³⁹⁾

38) 윤희길, 위의 책, p.71.

39) 윤희,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분단소설의 성과와 한계-윤희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2010, p.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분단소설로의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통일의 기본구상이 남북 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특히 이산가족 등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내지는 통일의지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통일교육에서 분단소설의 몫은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분단의 아픔을 학습자가 공감하고 내면화하여 향유하도록 하는 문학의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3.3.2. ARCS 모델 이론을 적용한 「장마」 동기모델 단계

3.3.2.1. 코스 정보 획득 단계

코스 기술 : 수업의 목적(주요목적이나 목표)은 무엇인가?

장마의 분단소설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장마에 드러나는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찾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가질 수 있다.

40)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2012, pp.32-39.

코스 기술 : (실제적인 또는 예상되는) 수업내용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제시하기.

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먼저, 작품을 감상하여야 한다. 이때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문에는 작품의 전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줄거리가 짧게 제시되고 본문의 일부만 발췌되어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전문을 미처 다 읽지 못했을 학습자와 작품을 읽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장마의 결말부분을 함께 읽어본다. 분단의 비극을 다룬 다른 문학 작품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장마에 드러난 분단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를 확인한다. 갈등이 해소되는 매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이를 통해 이 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장마에 드러나는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찾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가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확장 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장마와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그 극복 방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김원일의 「어둠의 혼」의 극복 방안을 살펴보고, 결말의 성격이 다른 분단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계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세계 문학과 공유하고 있는 보편성과 함께 한국 문학 고유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 둘 다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할 때, 편견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의 정당화 : 이 수업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요구나 요건은 무엇인가?

이 수업이 속한 단원의 성취기준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이해한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국어’가 제시한 ‘세부 내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이 서로 비교해 볼 때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한국 문학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은 각각 그 나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으며, 각국의 문학은 세계 문학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성과 자국의 문학에만 나타나는 특수성 또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계는 물론 세계 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우월한 위상을 갖게 된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구 문학은 전범으로 여기되 한국 문학은 특수한 것으로 여기거나 뒤쳐진 것으로 인식해 온 풍조를 반성하고, 세계 각국의 문학은 시차는 있으나 모두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문학은 근대 이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성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만의 고유한 성격도 지녀 왔다. 근대에 와서는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민족 해방을 지향하여 한편으로는 서구 문학과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지니게 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른바 제3세계의 여러 나라 문학과 공통점을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해방 이후에는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한국 문학은 세계의 문학과 비교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⁴¹⁾

코스의 정당화 : 학습자에게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문학을 배우는 것은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이다.

광복이 되자 좌우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고 곧 6·25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국가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후유증과 분단의 아픔은 오랫동안 한국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족상잔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나 전쟁의 충격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분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다가올 통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화해를 통한 소설의 대응상은 민족 내부에 조성된 동질성의 훼손상태를 치유하려는 유형으로서 분단 인식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모색이 될 것이다.

4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② 국어」, 2007, pp.409-410.

맥락 : 이 수업이 과거 또는 미래 다른 수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수업은 ‘II. 한국 문학과 외국문학’의 ‘3.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 ‘(2)장마’라는 한 소단원에 속해있다. 이 수업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2차시의 수업으로 끝날 것이다.

이 수업이 속한 단원의 성취기준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이해한다.’이다. 이 내용은 세계 문학과 비교하여 한국 문학의 보편성 이해하기와 세계 문학과 비교하여 한국문학의 특수성 이해하기를 세부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문학의 위상 - (4)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문학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의 심화 선택과목이므로 국어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일반 선택 과목이 심화 선택 과목으로 통합됨으로써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하게 될 과목의 성격은 진로, 적성, 교양 등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과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영역, 내용 체계 등 국어과에서 배우게 될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체제와 같다.

맥락 : 어떤 전달체제가 사용되는가?

강의, ppt, 영상자료, 소집단 토론 등이 사용된다.

3.3.2.2. 교재 분석 단계

주의집중 유발 및 유지 특성 : 긍정적 특성

‘본문’에 내용과 관련된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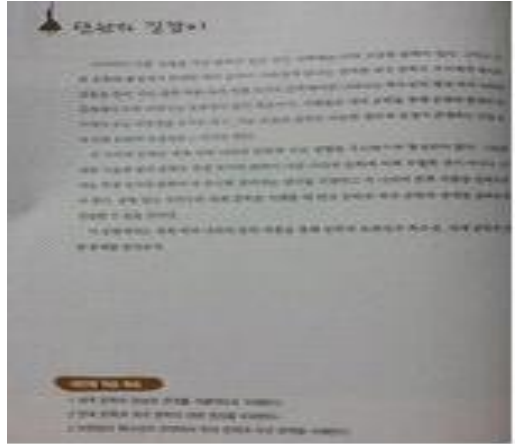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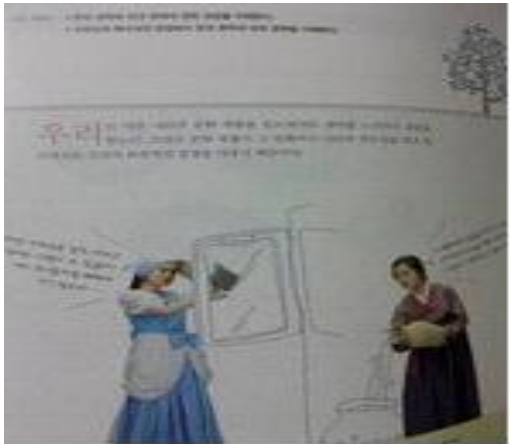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덧붙여 작품에 호기심을 준다.

‘학습 활동’에서 문제마다 날개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주의집중 유발 및 유지 특성 : 부정적 특성

학습목표가 드러나는 ‘단원의 길잡이’가 단순히 글로 나열되어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구성이 단조롭다.⁴²⁾

42) 같은 작품을 수록한 다른 교과서가 없으므로 유사한 성취기준을 다루고 있는 다른 교과서의 부분과 비교하였다. 발췌한 부분은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페이지이다.

천재 II p.100	창비 II p.27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페이지 당 글자가 많은 편이고 색감이 단조로워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

관련성 유발 및 유지 특성 : 긍정적 특성

‘확장학습’의 2번 문제에서 소설의 극복 방안을 정리하여 자신의 생각을 짧게 써보도록 함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학습’의 2번 문제에서 다른 문학 작품에서 분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는 것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문학 작품과 관련시켜 이 수업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련성 유발 및 유지 특성 : 부정적 특성

분단의 극복에 대하여는 언급이 있으나 통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가 이 수업을 통해 통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록 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분단을 한국의 특수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학습자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분단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유사한 경험이나 간접경험 등)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대단원의 '준비 학습'에서 제시한 접해본 외국 문학 작품을 떠올리도록 하는 활동은 소단원의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자신감 유발 및 유지 특성 : 긍정적 특성

'평가'에서 학습을 잘 소화하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과의 만족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보충하기', '심화하기' 활동을 더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자신감 유발 및 유지 특성 : 부정적 특성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내용 학습'이 단지 2문제만 간단히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된 작품 외에도 김원일의 어둠의 혼의 일부를 제시하여 장마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다. 이 때 어둠의 혼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지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 보는 작품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만족감 유발 및 유지 특성 : 긍정적 특성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소설의 결말부분을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만족감 유발 및 유지 특성 : 부정적 특성

작품의 전문이 실려 있지 않다.

통일을 위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통일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 코멘트(전반적인 수업이나 문서들에 적합한 코멘트를 포함하기)

장마가 수업 제재로 활용된 문학교과서가 2개뿐이고, 실제 수업 본문에 제시된 것은 기존 교재 분석으로 선정한 (주)천재문화에서 발행한 2007개정 문학교과서 『고등학교 문학Ⅱ』뿐이다. 따라서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교재의 적합성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용지도서가 아닌 기존 교과서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사가 줄 수 있는 ARCS 동기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3.2.3. 동기 전략 선택 단계

수업 초반 : 주의집중

교사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도입부분을 제시한다.(A1)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칠판에 써둔다.(A2)

작품의 제목이 왜 장마일지 생각해보라고 질문하여 장마라는 제목에 호기
심을 자극 시킨다.(A2)

수업 자료로 멀티미디어와 칠판을 적절히 이용하게 한다.(A3)

주의집중이 되지 않는 학습자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도입부를 제시한다.(A1)

학생의 대답에 교사는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A3)

수업 초반 : 관련성

학습자에게 분단소설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R2)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분단으로 인한 민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예를 설명하
고 찾아보게 한다. 예를 들어 전쟁을 직접 체험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험
담, 이산가족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없을 시에는 외부적인 요인
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싸웠거나 헤어지게 되었을 때의 감정을 상기시켜 볼
수 있다.(R1)

장마가 왔을 때의 느꼈던 감정을 상기시키도록 질문한다.(R2)

학습자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또래 집단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3)

학습자들이 수업을 마친 후 통일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R2)

학습자의 사전지식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한
다.(R3)

수업 초반 : 자신감

학습자가 수업내용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문제를 알려준다.(C1)

학습자에게 성공적인 학습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들을 알려준다.(C2)

수업 주제와 요지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제시하여 학습할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C1)

수업 초반 : 만족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에 따르는 내재적 강화나 외재적 보상이 주어짐을 알려준다.(S2)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요청 하도록 한다.(S1)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때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표현하도록 한다.(S2)

수업 중반 : 주의집중

교사가 서있는 위치나 자세, 목소리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준다.(A1)

학습자들이 수업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A2)

학습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눈을 맞춘다.(A3)

수업 중반 : 관련성

교사는 학습자들 전체를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개별적 언어를 사용한다.(R1)

교사는 학습자들이 장마를 배우는 것이 실생활과 연관 지어 유용한 일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R3)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황을 부여받아 해결하며 피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R3)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R3)

문제 상황인 분단 현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실제 상황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2)

수업 중반 : 자신감

학습자들의 질문이나 말들을 적극적으로 경청 하도록 한다.(C1)

학습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보다 쉬운 과제를 제시하거나 학습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C3)

질문을 한 후에는 학습자들이 대답을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C2)

학습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할 때는 중립적이고 과제 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한다.(C3)

수업 중반 : 만족감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끝에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한다.(S2)

학습자의 성공이 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준다.(S2)

수업마무리 : 주의집중

학습자들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한다.(A1)

수업내용의 전체적인 정리 및 요약할 때 다양한 수업 양식을 이용하도록 한다.(A3)

수업마무리 : 관련성

교사는 분단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학습을 통해 앞으로 다른 분단문학을 접할 때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문학 생활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R1)

수업마무리 : 자신감

학습자들 자신의 역량이 그들의 과제 수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C3)

학습자들에게 수업 초거나 수업 진행 중에 그들이 설정한 개인적인 학습목

표들에 대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C1)

수업마무리 : 만족감

교사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칭찬을 제공한다.(S1)

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였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S2)

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성적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되었다고 느끼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한다.(S3)

3.3.2.4. 교재 선택 및 개발 단계

동기 목표에 맞는 기존 동기 전략 교재 및 활동 파악

이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재인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있지만 이것은 ARCS 동기설계에 맞춰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기 전략 교재로서 선택하기에 적절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요구되는 동기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수업지도안은 새로이 구성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학습 자료들을 도입할 것이다.

자료 준비 계획

교과서, 동기전략 수업지도안, 동영상 자료, 장마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2.5 평가 단계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확인하기 위해 이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에게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직후 코스 흥미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평가 도구는 질문지이다.⁴³⁾

이 질문지에는 34개의 진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학습한 교재와 관련하여 각 진술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나타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답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되는 대답을 표시하세요.

A=전혀 그렇지 않다 / B=조금 그렇다 / C=보통이다 / D=대체로 그렇다 / E=매우 그렇다

1. 교사는 우리가 이 코스의 내용에 열중하도록 하는 방법을 안다.
2. 이 코스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나에게 유용할 것이다.

43) J. M. 켈러·송상호, 『매력적인 수업 설계』, 교육과학사, 1999, pp.203-205.

이 때 반응 척도는 1점에서부터 5점으로 한다. 최소점은 34, 최대점은 170, 평균이 102가 된다. 주의집중에 관한 질문은 1,4,10,15,21,24,26,29이고 관련성에 관한 질문은 2,5,8,13,20,22,23,25,28이고 자신감에 관한 질문은 3,6,9,11,17,27,30,34이고 만족감에 관한 질문은 7,12,14,16,18,19,31,32,33이다.

3. 나는 이 코스에서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4. 이 코스는 나의 주의집중을 거의 끌지 못한다.
5. 교사는 이 코스의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만든다.
6. 여러분이 이 코스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운이 있어야 한다.
7. 이 코스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8. 나는 이 코스의 내용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9. 이 코스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노력에 달렸다.
10. 교사는 특정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약간의 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11. 이 코스의 내용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
12. 나는 이 코스가 나에게 많은 만족감을 준다고 느낀다.
13. 이 코스에서, 나는 높은 수준의 수월성을 정해 놓은 후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14. 나는 내가 받은 성적이나 인정정도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공정하다고 느낀다.
15. 이 코스의 학생들은 코스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16. 나는 이 코스내용을 즐겁게 공부한다.
17. 교사가 나의 과제에 대해 몇 점을 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18. 나는 스스로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나의 공부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기쁘다.
19. 나는 이 코스로부터 내가 얻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20. 이 코스 내용은 나의 기대와 목적에 관련이 있다.

21. 교사는 흥미를 끌기 위해 유별나거나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한다.
22. 학생들은 이 코스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3.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교사는 흥미로운 다양한 교수기법을 사용한다.
25. 나는 이 코스가 나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6. 나는 종종 이 코스에서 공상에 잠긴다.
27. 내가 이 코스에 공부하면서,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8. 이 코스는 나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이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29. 주어지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들은 종종 나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30. 나는 이 코스의 도전수준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적합하다고 느낀다.
31. 나는 이 코스에서 다소 실망감을 느낀다.
32. 나는 이 코스에서 성적, 코멘트, 또는 다른 피드백을 통해 나의 공부에 대해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느낀다.
33. 이 코스에서 내가 공부해야 할 분량은 적절하다.
34. 나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피드백을 받는다.

지금까지 켈러의 동기설계 단계를 본고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통합하여 5 단계로 제시하였다. 코스 정보 획득 단계에서는 분단소설 장마를 텍스트로 삼고 있는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확인하였다. 이 수업이 학습자에

게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교육과정의 맥락에 맞게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교재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교재를 ARCS 모델의 4가지 측면을 중점으로 하여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교재에서는 분단의 극복에 대하여는 언급이 있으나 통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가 이 수업을 통해 통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작품의 전문이 실려 있지 않고 장마에서 분단극복 의지가 드러난 결말 부분을 본문에 수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통일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동기 전략 선택 단계에서는 수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수업 초반, 중반, 후반 3가지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동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업지도안에 사용될 수 있을만한 동기 전략을 최대한 끌어내어 교수가 대상자에 맞게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업 초반에는 주의집중에 가장 치중하고 있으며 수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전략은 관련성이다. 학습자가 통일의 당위성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분단현실을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동기의 외적요인인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재 선택 및 개발 단계에서는 동기 목표에 맞는 기존 동기 전략 교재 및 활동 파악하여 수정할 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파악된 수정할 점으로 바탕으로 수업지도안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동기 전략이 효과를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5단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

하였다. 문학이 심화수업으로 할당된 수업차시가 많지 않으므로 대단원을 8차시로 보고, 소단원에 해당하는 장마를 2차시로 준비하였다. 심도 있는 수업을 위해 2차시 수업이 넉넉하지 않으나, 학습목표를 분명히 하여 수업을 한다면 다른 분단소설과 결말부분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통해 통한 장마의 교육적 시사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3. ARCS 모델을 활용한 「장마」 수업지도안

3.3.1. 1차시 「장마」 수업 지도안

단 원 명	(2) 장마	차시	7/8	교 과 서 수	148-154
본시 주제	분단소 설	학습목표	장마의 분단소설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업 유 형	ARCS 동기전략
학습 단계	학 습 과 정	교수·학습 활동	ARCS 동기유발 전 략 설명 및 요소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분위기 조성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 성한다.	주의집중이 되지 않 는 학습자들을 지적 하여 주의집중 하도 록 한다. (A1)	15	

	<p>학 습 내 용에 관 한 흥 미 유 발</p>	<p>작품이 배경이 되는 6·25 전쟁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감상한다.</p>	<div data-bbox="753 309 957 460" data-label="Image"> </div> <p>6.25 전쟁 6.25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p> <p>구체적인 시각적 자료로 주의 집중 유발한다. 이때 멀티미디어와 칠판을 적절히 이용하게 한다.(A1, A3)</p>	<p>동 영상 출처 http://h.tsherpa.co.kr/media/frame.aspx?fcode=A20111003_7967</p>
		<p>작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한다.</p> <p>>장마는 어떤 날씨를 설명하는 단어인가요? 장마가 왔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 기분을 생각하면 이 작품을 읽어봄</p>	<p>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R1)</p>	

		시다.		
	학 습 목 표 확인	분단소설로서의 소설 장마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p>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목적 지향성을 갖게 하고 성공 가능 여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R1, C1)</p> <p>학습자들이 수업을 마친 후 통일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R2)</p>	
전 개	기 초 기 능 탐 색 활동1	장마의 줄거리를 소개한다.	<p>교사는 작품의 긴장감에 따라 목소리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준다.(A1)</p> <p>학습자들이 수업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A2)</p>	20 교과서에 있는 줄거리 대신, 이야기를 하듯이 재미있게 소개하도록 한다.
	기 초 기 능 탐 색 활동2	<p>학습내용을 안내한다.</p> <p>작품을 읽을 때 다 음과 같은 내용을</p>	<p>학습내용을 세부적으로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도달점을 분명하게 안내함으로</p>	

	<p>생각하며 감상하도록 하자.</p> <p>>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 할 때, 계절적 배경인 장마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p> <p>갈등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소재는 무엇이며, 이 해결 방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p>	<p>써 믿음과 긍정적 기대감을 확립할 수 있다.</p> <p>(A1,A3,C1,C2)</p> <p>학습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보다 쉬운 과제를 제시하거나 학습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C3)</p>	
작품 감상	<p>본문을 읽을 시간을 제공한다.</p>	<p>교사는 학습자들이 본문을 읽는 동안 돌아다니며 학습자 개개인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질문에 개별적으로 답해주며 열심히 읽는 학생을 격려한다.(R1,A1,C1)</p>	<p>교과서 148-154 쪽</p>

정리	학 습 정 리	<p>작품 감상을 마무리 한다.</p> <p>>우리나라가 현재 까지 분단국가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통해 느낀 점을 말 해보고 앞으로 지 념야할 자세를 생 각해보도록 한다.</p>	<p>작품을 충분히 이해 한 학습자에게 작품 에 대한 감상을 발 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발표한 학생에게 평가에 추 가점을 부여한 다.(S2)</p> <p>작품의 배경을 우리 가 당면하고 있는 분단현실과 관련 지 어 생각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R2)</p> <p>학습자들의 관점이 나 감정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한 다.(A1)</p> <p>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였는 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이 성공적이었</p>	15	
----	------------	---	---	----	--

		음을 확인하도록 한다.(S2)	
	<p>차시를 예고한다.</p> <p>>155-157쪽의 학습 활동을 학습할 것이며 특히 ‘목표 학습’의 2번 문제를 조별발표로 수행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미리 공지한다.</p> <p>>분단의 비극을 다른 다른 문학 작품을 찾아보고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분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p> <p>다음 수업을 위해 선행해야할 과제를 제시한다.</p> <p>>김원일의 어둠의 혼에 대해 미리 조사해오도록 한다.</p>	<p>교사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을 칭찬하고, 다음 학습을 통해 통일의 주역이 될 학습자가 지닐 수 있는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칭찬을 제공한다.(S1)</p> <p>장마의 전문을 읽는 활동은 인생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삶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재미를 통해 즐거움(내재적 강화)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S2)</p>	<p>다음 학습에 본문에서 제시된 것 말고도 다른 작품들을 공부할 것임을 미리 공지하여 처음 보는 작품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미 다른 작품을 알고 있는 학습자와 공통성 문제가</p>

		장마가 수록된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충분히 구비되어 있음을 알리고, 모든 학생이 전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 기 지 않 도 록 유 의 한다.
공 통 전 략	<p>학습자와 끊임없이 시선을 교류하며, 열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p> <p>장마라는 작품을 분석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마의 결말에서 드러난 분단의 극복 의지를 학습자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각자가 스스로 체득하도록 지도한다.</p>				
평 가 관 점	<p>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마를 이해하였는가?</p> <p>장마의 분단소설적 특성을 파악하였는가?</p>				

3.3.2. 2차시 「장마」 수업 지도안

단 원 명	(2) 장마	차시	8/8	교 과 서 수 업 유 형	155-157
본시 주제	분단소 설	학습목표	장마에 드러난 분단의 극복 의지를 파악 알 수 있다.	ARCS 동기전략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ARCS 동기유발 전략 설명 및 요소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분위기 조성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의집중이 되지 않는 학습자들을 지적하여 주의집중 하도록 한다.(A1)	10	
	학습 내용에 관한 흥미 유발	<p>‘화해의 상징에서 대립의 상징으로’라는 제목의 YTN 뉴스의 동영상과 기사(2013.04.22)를 감상한다.</p> <p>>최근의 자료를 제시하여 분단현실과 아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어 학습자가 실상과 관련성을 느끼도록 한다.</p> <p>기사 내용 중 남북 관계 악화로, 화기애애했던 남북 근로자들 사이의 분</p>	   <p>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분단으로 인한 민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예를 설명하고 찾아보게 한다. 예를 들어 전쟁을 직접</p>		<p>동영상 출처</p> <p>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mid=052&mid=0000453230</p> <p>http://search.tsherp.co.kr/search/movie.aspx?</p>

		<p>위기는 점점 일어 붙었고(중략)남북근로자 수만 명의 삶의 터전이자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대립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분에 학습자가 집중하도록 한다.</p> <p>이산가족의 아픔이 기록된 동영상들 함께 감상한다.</p>	<p>체험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험담, 이산가족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없을 시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싸웠거나 헤어지게 되었을 때의 감정을 상기시켜 볼 수 있다.(R1)</p> <p>학습자에게 통일의 주체가 될 청소년의 입장에서 분단소설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R2)</p>	<p>searchtype=movie&linkroute=C3&searchcontents=%uC774%uC0B0%uAC00%uC871&curri=emh&searchroute=button&filetype=all</p>
		<p>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한다.</p> <p>>분단의 아픔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나요? 다른 분단소설에서는 분단을</p>	<p>학습자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또래 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3)</p> <p>학습자들이 수업을</p>	

		<p>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장마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까요?</p>	<p>마친 후 통일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R2)</p> <p>학습자의 사전지식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한다.(R3)</p> <p>수업 주제와 요지로 부터 기대하는 것을 제시하여 학습할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C1)</p>	
	<p>학 습 목 표 확인</p>	<p>다른 분단소설에서는 분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토의하는 조별 발표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장마에 드러난 분단의 극복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p>	<p>교사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수행 평가 점수로 반영됨을 알려준다.(S2)</p> <p>교사는 학습자들이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요청 하도록 한다.(S1)</p>	<p>모 둠 별 학습지 >항목: 작품, 선정 이유, 작품의 줄거리와 특징, 장마와 의 차이점</p>

전개	조별 활동1	4개의 조로 나누어 ‘목표 학습’ 2번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사전 지식을 서로 공유하여 작품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장마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황을 부여받아 해결하며 피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R3)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R3) 학습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예시나 힌트를 제공한다.(C3)	30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다룬 작품 > 「기억 속의 들꽃」 (윤홍길), 「흰 종이수염」 (하근찬), 실향과 이산의 비극 > 「오발탄」 (이범선), 「숨쉬는 영정」 (구인환)
	조별	조별로 선정한 작품의 간략한 내용	학습자들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경청 하		수행평가 점수 반

	활동2	을 소개하고 어떠한 부분에서와 차이점이 있는지 발표한다.	<p>도록 한다.(C1)</p> <p>질문을 한 후에는 학습자들이 대답을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C2)</p> <p>학습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할 때는 중립적이고 과제 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한다.(C3)</p>		영
정리	학 습 정 리	<p>활동을 마무리 한다.</p> <p>>앞 차시에 배운 장마를 준비한 PPT 자료로 정리해 준다.</p> <p>>오늘 발표에 있었던 내용 중 수업과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준다.</p>	<p>현재의 학습을 통해 앞으로 다른 분단문학을 접할 때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문학 생활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R1)</p> <p>학습자들 자신의 역량이 그들의 과제 수행으로 나타난다</p>	15	PPT

		는 것을 알도록 해 준다.(C3)	
평가 및 수업 마무리	<p>학습자에게 준비한 ‘코스 흥미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p> <p>그동안 교사는 발표에 대한 수행평가 점수를 기록하고 수업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체크한다.</p> <p>>학습자들은 이 수업에 대해 흥미를 나타내는가?</p> <p>>수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동기 전략들의 소요시간은 적당했는가?</p> <p>>이를 바탕으로 수정 요망 사항을 기록하여 다음 수업에서 시정하도록 한다.</p>	<p>학습자들에게 수업 초구나 수업 진행 중에 그들이 설정한 개인적인 학습목표들에 대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C1)</p> <p>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였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S2)</p> <p>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성적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되었다고 느끼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한다.(S3)</p>	<p>평가지</p> <p>:동기 설계 통합 단계에서 제시한 질문지를 사용</p>

		<p>수업을 종료한다.</p> <p>>장마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할머니가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p>			
공통 전략	<p>학습자와 끊임없이 시선을 교류하며, 열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p> <p>장마라는 작품을 분석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마의 결말에서 드러난 분단의 극복 의지를 학습자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각자가 스스로 체득하도록 지도한다.</p>				
평가 관점	<p>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장마의 분단소설적 특성 중 극복 양상이 드러남을 파악하였는가?</p> <p>통일의 당위성을 청소년 각자가 스스로 체득하였는가?</p>				

4. ARCS 모델 활용과 분단소설 교육 특성과 의미

2012년 12월24일경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절반은 ‘남북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8%인 562명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 학생 606명(52%)보다 오히려 적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에 부정적 대답을 한 606명 중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학생은 402명으로 전체의 34%였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 없다.’고 밝힌 학생은 204명으로 18%를 차지했다.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통계표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0대는 24.2%, 30대는 13.5%, 40대는 29.2%, 50대는 35.8%가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데 비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에는 20대가 2.7%, 30대가 3.9%, 40대가 2.6% 50대가 1.6%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도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각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답변한 계층은 20대는 10.2%, 30대는 8.3%, 40대는 4.0%, 50대는 4.9%로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2배 정도 통일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⁴⁾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것은 도덕교과이다. 도덕과 교과

44)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한국방송, pp.62-63.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예를 들어 중학교 통일교육 내용에는 8학년이 ‘바람직한 국가민족생활’이라는 단원에서 통일의 의미,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에는 10학년에서 ‘민족통일 문제목표통일한국의 모습’이라는 단원에서 민족분단의 과정과 방향, 통일실현의 예를 들어 우리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다.⁴⁵⁾

그밖에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교육지도자로서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정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통일 교육은 전적으로 도덕교과에 맡겨진 채 학습자들에게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제는 문학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당위성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조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수업을 위한 통일교육에 불과하게 된 까닭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45)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6) 평화와 윤리의 (가)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민족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구촌 시대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 ②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신과 국가의 관점 비교(병역 거부 문제 등)
- ③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 ④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에 따른 제반 윤리적 문제
- ⑤ 재외 동포의 문제와 한민족 네트워크

못한 지도방법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기유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 ARCS 모델을 활용한 분단소설이 필요한 것이다.

ARCS 모델을 문학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각 교과마다 조금 더 유리한 교육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 쪽 방향으로만 교육 방안이 연구되는 것은 문학교육의 폭을 좁히는 일이다. 그동안 ARCS 모델이 초등학교나 과학과 수학 등의 과목에 중점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학습과 과목에 적용가능성이 있다. 동기유발적인 원리는 연령과 학습과 학과의 다름과 관계없이 동일하며 대상과 과목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의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ARCS 모델을 적용한 수업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꾸준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이 많지 않아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ARCS 모델의 수업단계에 따라 평가까지 도출한 석사학위 논문들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논문이 적은 인원, 짧은 기간, 소단원을 가지고 진행하여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교과서에서 배우는 소설은 대중소설과 접근방식이 같아서 안 된다. 순수소설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소설의 기법과 내용들의 상호 관련된 부분들과 작품의 주제를 분석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중소설의 경우에도 의견상으로 인간의 경험을 묘사하지만, 순수소설의 경우처럼 면밀한 주의력이나 분석으로 인한 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중소설과 교과서 속의 소설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대중소설이 다수 대중에게 읽히기 위해 흥미 위주로 지은 소설이라면, 교과서 속의 소설은 텍스트를 매개로 성취기준에 맞는 학습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교육에서 수업은 문학자체

가 지닌 내재적 흥미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ARCS 모델의 4가지 중 관련성과 연관시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ARCS 모델은 대상자를 분석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부합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⁴⁶⁾

ARCS 모델을 문학교육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 이는 문학뿐만 아니라 ARCS 동기설계를 적용할 모든 교과에 부합되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주어진 전략들은 상세하고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는 많고 전략들은 따로 떨어져 있다. 이 전략들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변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특정 교과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와 변형이 필요하다.

둘째, 강물레(2006)는 ARCS 모델이 중·고등교육보다 초등교육에서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바가 있다.⁴⁷⁾ 이 결과대로라면 교육과정에서

46)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361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1, p.19.

47) 강물레, 「ARCS 동기전략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문학’은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길현주(2001)는 ARCS 전략을 적용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통제집단 학생들에 비해 전체동기, 주의집중, 관련성,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⁴⁸⁾ 이는 고등학교에서 ARCS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역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좀 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학의 경우 같은 작품이라도 교과서마다 다른 성취기준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ARCS 모델을 설계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 수학의 경우 문제를 풀기 위해 수학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푸는 성취기준을 수행한다면, 숫자는 다르겠지만 공식의 큰 범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의 경우 어느 점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성취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교과서의 종수가 다양화 되고,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학 교과서도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를 기준으로 ARCS 모델을 따른 수업지도안을 구성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어렵게 ARCS 모델을 작성하더라도 수업에서 사용되는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8) 길현주, 「ARCS모형이 사회과 동기유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5. 결론

문학이란 한 개인의 삶을 담아내고 있으며, 크게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가 유기적으로 관계되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대한 집합체이다. 특히 소설은 인간인식과 인간성 탐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사건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분단소설을 학습하면, 학습자는 분단현실을 소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소설이 분단극복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 그 소설을 접하는 학습자도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단극복의 의지가 담긴 작품으로 그 내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분단소설 「장마」을 선정하여 통일교육적 측면에서 분단소설을 동기 유발하여 유지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습내용과 분리된 형식적인 동기유발의 방법으로는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인 동기유발은 좀 더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체계화된 동기유발의 전략을 사용한다면 교사는 자신감 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켈러의 ARCS 동기유발 모델은 수업설계와 동기설계의 이상적 통합함으로써 수업의 전 과정에 걸쳐 수업의 효과성과 더불어 매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은 수업에서의 동기를 결정짓는 여러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켈러의 동기유발 모델이 공개된 후 이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정교성을 높이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대부분 이 모델이 가진 타당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에서 소설교육은 그 매력성을 살리기에 유리한 교과임

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학년이 될수록 그 흥미도가 떨어지고 있고 마침내 성인이 되어서는 소설을 향유하지 않는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체계적인 동기설계 과정을 통해 교사는 국어과 교육에서 특히 소설 수업이 가지는 원래의 매력성을 회복하고 이와 더불어 본질적인 목적인 효과적인 수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수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어느 교과서를 지정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배울 작품이 달라지고 있다. 이 때 분단에 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해 「장마」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RCS 모델을 활용한다면 통일교육 측면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분단현실을 인지하고 내면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교과에서 ARCS 동기 설계 모델을 활용한 수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국어 교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수업지도안으로 ARCS 모델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어 교과에서도 ARCS 모델 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져 실제 적용단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길 기대한다.

분단 상황이 지속될수록 민족의 언어, 생활, 사상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분단 이후의 세대들은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의 아픔이나 통일이 직접적일 수 없는 전후세대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는 문학의 특성을 살린다면 통일 교육에서 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윤홍길, 『장마(오늘의작가총서 8)』, 민음사, 1980.
- J. M. 켈러·송상호, 『매력적인 수업 설계』, 교육과학사, 1999.
- 고형진, 『고등학교 문학Ⅱ』, (주)천재교육, 2012.
- 김윤식, 『고등학교 문학Ⅱ』, (주)천재교육, 2012.
- 박종호, 『고등학교 문학Ⅱ』, 창비, 2012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② 국어」, 2007.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1.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2012
-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한국방송, 2012.

<단행본>

-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 김종희,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 정희모, 『1950년대 한국문학과 서사성』, 깊은샘, 1998.
-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 강진호,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 김명준, 『한국의 분단소설』, 『청운』, 2003.
-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전후 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유임하, 『한국 소설의 분단 이야기』, 책세상, 2006.
표성흠, 『분단시대 소설의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2008.
이삼남, 『국어교과서 작품읽기: 고등수필』, 창비, 2010.
강진호, 『현대소설과 분단의 트라우마』, 소명출판, 2013.

<학위논문 및 학술지>

임현영, 「분단시대 문학론고」, 『민족의 상황과 문학』,한길사, 1986.
최장집,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한국전쟁 연구』, 태양, 1990.
강진호, 「분단현실의 자기화와 주체적 극복 의지」,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길현주, 「ARCS모형이 사회과 동기유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강진호, 「교과서·문학교육·교사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2002.
김학목, 「문학교육에서의 분단 소설 연구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혜숙, 「ARCS 모델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박종석, 「윤홍길의 『장마』 론」, 『국어국문학』 제 22권, 2003.
정수연, 「학습자 활동 중심의 소설 지도 방안 연구 : 윤홍길 「장마」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선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이민선, 「협동학습을 통한 분단소설 교육방안 연구-윤홍길 「장마」를 중심

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강물래, 「ARCS 동기전략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은경, 「ARCS 동기화 모형이 국어과 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강명순, 「분단소설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옥림, 「시 창작 동기화 지도 방책 연구 : ARCS(동기요소)를 활용하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박혜라, 「분단소설의 학습자 중심 교육방안 연구 : 윤홍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박혜라, 「분단소설의 학습자 중심 교육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박윤주, 「분단소설 교육 방법 연구 - 윤홍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춘희, 「초등미술과 수업의 동기유발을 위한 ARCS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초등3학년 서예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조정민, 「ARCS동기설계모델을 활용한 국악수업 적용 및 효과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윤희,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분단소설의 성과와 한계-윤홍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2010,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of the “Bundansoseol”
(Korean novels written about Korean war and divided
country) using ARCS model
- Focused on “Jang-ma” by Yun Heung-gil

Jung, Hae-kyo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reunification, we need to the basis of non-political recognition to understand each other. Having view of desirable unification for teenagers is important. for that being true,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voluntarily.

The “Bundansoseol”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analysis of the theme or characteristic of each novel based on formalism. such education method is not considering the students who are lack of understanding of overall circumstances during the Korean War.

The study designs motivation strategy based on the ARCS model(first developed by Keller in 1979). this motivational design of instruction is caused the motivation of learners and maintain to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Taking the way of teaching based on the readers' view, it is expected that ARCS model will bring and achieve the education goal in "Bundansoseol",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and reunification. Learners will be able to realize the need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novels written about Korean war and divided country.

Many results of ARCS model showed that using this model is more desirable to motivate the learner than to improve the learners' achievement. But it is need to study that the long-term input of ARCS model effect learning motivation permanentl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tudy presented on the thesis aims to show the effective teaching way using as a way to teach about national unification. it can be useful to reach students since they are familiar with novels. It will suggest an educational foothold to solve one of the tantalizing problems of national division through learner based model.

Yun Heung-gil (born 1942) is a South Korean novelist known for his treatment of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Yun Heung-gil's novel, "Jang-ma" show the strong willingness for reunification of two Koreas and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a divided country. In an aspect that literary education on "Bundansoseol" should be intended to internalize the willingness,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When students learn "Bundansoseol", Learners are able to recognize naturally while reading the novel reality partitioned. This is why we need to be applied to the literary education of the ARCS model.